

	<b>독 일 ( 프 랑 크 푸 르 트 ) 사 무 소</b> <b>해외동향보고서</b>	작성팀	마케팅지원팀
		담당자	정훈희 소장
		일 시	2024. 3.

## CEPA Insight

- 독일 내 육류소비 감소, 윤리적 소비 증가에 맞춘 식품 수출전략 필요
- 대마초 합법화, 주35시간 근무제 등 정책적 시도에 대한 국제사회 영향

### ① EU 정상회의\*(3. 21~22.) 주요 내용

\* 매 분기 브뤼셀에서 개최, 주요 사안별 큰 틀에서 방향 합의 및 제시

- (대러 제재) 알렉세이 나발니 사망과 연루된 개인·기관 제재(자산 동결 및 EU 입국 금지) 시행, 2천억 유로 규모 러 동결자산 활용방안 검토 예정
- (우크라 지원) 대 우크라 경제적·군사적 지원 지속에는 동의했으나, 우크라산 농축산물 무관세 연장에 대해서는 이견으로 합의 실패
  - 러-우 사태 후, EU는 우크라산 농축산물 대상 면세 혜택(무관세) 부여
  - '24. 3. 20, 유럽의회 및 이사회는 '25. 6월까지 무관세 혜택 1년 추가 연장에 잠정 합의했으나, 프랑스, 폴란드 등의 반대로 이사회 승인 실패
- (EU 확대) 보스니아\*에 대해 EU 가입 협상 개시를 승인했으며, 집행위에 관련 협상 프레임워크를 수립할 것을 요청
  - \* '16년 EU 가입신청 후 '22. 12월 가입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음
- (방위산업 강화) 기술개발 투자 및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, 방위 물자의 공급망 병목현상을 제거해 유럽 방위산업 역량 강화 추진

※ KOTRA EU 주간브리핑 제24-13호(123호) 중 발췌·요약

### ② EU, 탄소 제거 및 탄소 농업을 위한 EU 표준 자율 인증제도 합의

- 독일을 포함한 다수 회원국은 3. 8, EU 상주대표회의(COREPER)에서 탄소 제거 및 탄소 농업을 위한 EU 표준 자율 인증제도 합의안 승인
- 동 합의안은 △바이오에너지-탄소포집저장, △직접대기탄소 포집저장 등을 통한 '영구저장', △장기저장설비에 최단 35년 이상 '일시저장', △토양의 탄소 배출 제거·감축 '탄소 농업' 등을 인증 활동으로 규정

※ 연방경제기후보호부 (<https://www.bmwk.de/Redaktion/DE/Pressemitteilungen/2024/03/2024-03-08-einigung-ueber-eu-weit-einheitlichen-freiwilligen-zertifizierungsrahmen-fuer-co2-entnahme-und-carbon-farming-beschlossen.html>)

### ③ 독일, 석탄발전소 15개 폐쇄

- 독일의 에너지업체 RWE 및 Leag는 석탄사용 단계적 폐지에 발맞춰 갈탄 화력발전소 7곳을 부활절 연휴기간 중 폐쇄(3. 29.~4. 1.)
  - 나아가 연방경제기후보호부 발표에 따르면, 총 발전량이 1.3GW에 달하는 중소형 석탄발전소 8곳\*을 전력원에서 영구 제외
  - \* 러-우 전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되자 지난 2년간 임시가동
- 정부는 전기와 가스 가격이 크게 하락했으며, 재생에너지 확대 덕분에 기후친화적 전기 생산이 가능해 화력발전소가 필요없어졌다고 언급

※ Welt (<https://www.welt.de/wirtschaft/article250828088/Robert-Habeck-15-Kohlekraftwerke-werden-stillgelegt-Ueberfluessig-und-koennen-endgueltig-vom-Netz.html>)

### ④ 독일 내 육류소비 감소

- 독일 내 육류소비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방식품농업부는 2023년 1인당 육류소비량이 51.6kg으로(전년대비 430그램 감소, 2018년: 60.9kg) 공식적인 집계 시작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
  - 돼지고기(1인당 평균 27.5kg)와 소고기(8.9kg) 소비 감소 / 가금류(13.1kg)는 증가
- 외츠데미어(Cem Oezdemir) 식품농업장관은 독일인들이 식단 관련 개인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, 동물복지를 더욱 고려하고 있다.
  -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축산업관련 기준 향상을 원하며 이를 위해 돈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

※ Spiegel (<https://www.spiegel.de/wirtschaft/service/fleisch-deutsche-essen-weniger-rind-und-schwein-a-bb16a08e-8400-43b1-9fec-2820dc0bee6f>)

### ⑤ 폭스바겐, 중국 파트너와 전기차 개발 예정

- 폭스바겐과 중국 스타트업 XPeng은 전기차 개발 협력의사를 밝히고, 차량부품 및 플랫폼 부품의 상호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
- 폭스바겐은 개발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목표라며, 기술의 공동구매 및 사용으로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개발시간 약 30% 단축 가능 기대
- 협력 분야는 우선 배터리 구동 B급 차량 두 종류로 2026년 출시 예정

- 동 협력은 폭스바겐이 중국 내 실적 부진 극복을 위한 조치로 평가
- ※ tagesschau (<https://www.tagesschau.de/wirtschaft/unternehmen/vw-elektroautos-china-100.html>)

## ⑥ 대마초 부분적 합법화 시행

- 2024. 2. 23, 독일 연방의회가 암시장 척결과 청소년 보호를 목표로 통과시킨 대마초 부분적 합법화 법안이 4월 1일부터 시행
  - 18세 이상 성인은 집에 건조 대마 50g까지 보관 및 25g까지 휴대 가능
  - 또한 가정에서 대마를 최대 세 그루 재배 및 공동 재배 합법(7월~)
  - 단, 클럽 내 대마초 흡연이나 미성년자의 클럽 출입은 불법
- 향후, 정부는 일부 약국이나 허가받은 매장의 상업적 판매 시범 허용 계획
- 의학계 일부는 중독성과 뇌 건강을 이유로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 중이며, 야당은 정부안이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비판\*
- \* 1988년 유엔 협약에 따라 대마의 허용을 의학 및 학술의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
- ※ DW (<https://www.dw.com/en/cannabis-german-growers-celebrate-as-hemp-is-legalized/a-68468064>)

## ⑦ 도이체반(DB) · 독일기관사노조(GDL), 2029년부터 주 35시간 근무제 시행

- 독일철도청(DB)과 독일기관사노조는 2029년부터 주당 근무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하고, 2029년까지는 근무자가 35시간에서 40시간 사이에서 근무시간을 선택하는 내용을 골자로 단체협약에 합의
  - 또한, 2년간 두 차례 임금을 인상하고 인플레이션 보너스를 지급
  - 이번 단체협약은 2025.12.31.까지 유효하며, 다음 단체협약 협상이 진행되는 2026.2월까지의 평화의무\*가 적용
- \*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당해 협약 사항에 대한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
- ※ Spiegel (<https://www.spiegel.de/wirtschaft/deutsche-bahn-gdl-setzt-35-stundenwoche-durch-ab-2029-a-8a7cb906-cd86-4182-97f8-03e5c4c8afb5>)